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해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전문
(fn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3

금강(錦江)

금강(錦江)

‘금강’은 공주의 북쪽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백제의 고도(古都) 공주의 옛이름 고막노루>곰나루>곰나루>웅진(熊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곰(고막)’은 ‘곰’ 계열어의 하나로서 방위상으로는 후(後, 뒤), 북(北)을 뜻하면서 큼(大), 많음(多), 신성함 등을 나타내는 옛말이다. 이 ‘곰’에서 큰강>곰강>곰강>금강(錦江)이 된 것으로 보며, 금강의 ‘금(錦)’이 곧 곰의 사음(寫音) 표기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강은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과 사비로 천도하게 된 중요한 지리적 요인의 하나로서 백제 후기의 역사와 매우 긴밀한 강이다.



『대동여지도』 (15첩 4면) 금강 일대

금강에서 나·당 연합군과 백·일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나·당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 주류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금강 어귀에 위치하였던 기벌포는 「삼국사기」에는 소정방이 기벌포에 상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기록은 일본군과 당나라 군함이 전투를 벌인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강 하구 부근인 한산 근처에 기현이란 지명이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주류성이 한산 근처에 있는 건지산성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산성은 작은 토성으로 대군의 주둔지로는 보기 어렵다.

유역에 부여군 백마강변의 부소산과 낙화암 및 백제유적지, 공주시의 무령왕릉 등이 있다.

금강유역에서 ‘錦’자 지명을 살펴보면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금정리, 금성산, 금산천, 금동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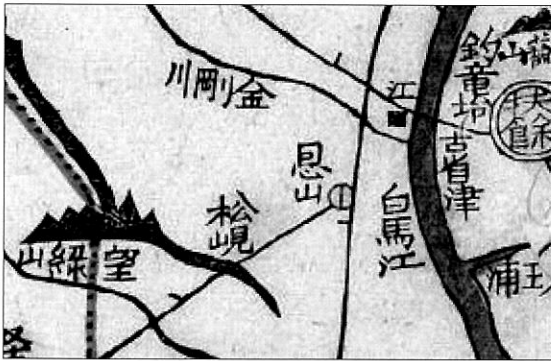
그 외 명칭

▶ 고성진 古省津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성진의‘성’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옥천군조에는 고성진(古城津), 부여군조에는 고성진(古省津)으로 나



오며,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여지도』에도 부여군조와 일치한다. “임천·석성 두 고을 경계에서 고성진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부소산 아래 있는 사자하(사비수)라고 하였으나 그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대동여지도』 (16첩 5면) 고성진 일대

▶ 공주강 公州江

공주지방에서 고려 때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차령(車嶺)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을 중용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공주강이 바로 금강이다. 공주는 곧 곰나루 -웅진(熊津)이며 큰고을>곰골>공주가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공주의 ‘공(公)’은 ‘곰’의 사음(寫音) 표기로 해석한다.

▶ 말흘탄 末訖灘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이름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옥천)에는 금강이 “회인현(懷仁縣)을 지나서 말흘탄이 된다”고 하였다. ‘말흘’은 험하다는 뜻의 옛말 ‘머들다(險)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곳의 물살이 세거나, 거친 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대동방여전도』 (15첩 6면) 말흘탄 일대

▶ 백강 白江

금강의 문헌상 다른 이름이라는 설과 금강 이외의 다른 하천으로 보는 의견이 나누어져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부여)에는 백제 충신 성충이 의자왕에게 간언한 글에 백강을 “기벌포(伎伐浦)라고도 이른다”고 하였다. 백강의 위치

대하여는 금강 하구설, 동진강 하구설, 삼교천 하구설 등이 있다. 그런데 백제어에서 백(白)의 새김이 곧 ‘쑹’(sarp)으로서 백강이 사비강-백마강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백마강 白馬江

부여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세종실록』에 처음 나오는 이름으로서 『당서』나 『일본서기』 등에 나오는 백강(白江), 백촌강(白村江)과 서로 통하는 이름으로 보고 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이 강에 이르자 안개와 비바람이 심하므로 이는 필시 용의 조화라 하여 흰 말을 미끼로 금강의 용을 낚았더니 비바람이 잠잠해져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강이름을 백마강(白馬江), 용을 낚던 바위를 조룡대(釣龍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백제어에서 ‘백(白)’의 새김이 ‘쑹’(sarp)으로서 백강이 사비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백마강=백촌강의 마(馬)=촌(村)을 말(마을)로 풀이하면 사비 마을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고란사 아래 나루터에서 보면 바위섬이 보이는데 이 바위가 조룡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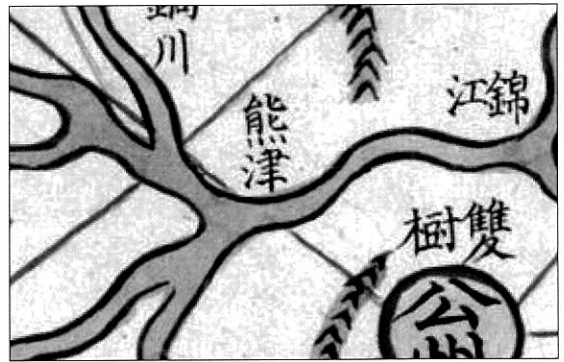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16첩 5면) 백마강 일대

▶ 백촌강 白村江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오는 금강의 다른 이름이다. 백마강과 백촌강을 같은 강의 다른 표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곧 백마강의 마(馬)=말과 백촌강의 촌(村)=마을(말)이 모두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 웅진 熊津

고려·조선시대에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공주지방을 웅천(熊川), 웅주(熊州) 등으로 부르게 된 것도 웅진(熊津)-고마루에서 비롯된다. 고마루는 곧 곰나루를 뜻하는데, 이 강가에 있었던 곰사당과 곰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고조선 을 비롯한 북방민족의 곰 토템사상이 민족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나라에서 명산대천에 제사지내던 곳이었던 웅진연소(熊津衍所)가 있었다.



『대동방어전도』 (15첩 4면) 웅진 일대

▶ 적등진 赤登津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문헌상 이름 중 하나이다. 적등진은 옥천과 영동의 중간에 위치한 나루터로 영남지방과 호서지방을 잇는 길목이며 서울로 가는 교통 요충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옥천)에는 “고을 남쪽 40리에 있는데 그 물 줄기가 셋”이라고 한다. 이 강변의 석벽이 붉은빛을 띠는 적벽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적등진’이라 부른다고 한다. 충청도 옥천·영동 일대에서 중요한 나루터였다고 하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대동여지도』 (16첩 3면) 적등진 일대

▶진강 鎭江

고려·조선시대에 금강 하구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임피)에는 “공주 웅진이 (중략)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였으며,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는 군산포진(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진포로 인하여 금강 하구를 진강이라 부르게 된다. 진강은 1380년(고려 우왕) 최무선(崔茂宣)의 화기(火器)를 이용하여 연안에 침범한 왜적선 500여척을 불사른 전적지로서 기억되는 곳이다.

▶차탄 車灘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옥천)에는 “고을 동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차탄의 ‘차(車)-수레(수리)’는 우리 옛말 ‘술’에서 비롯된 갈래말로서 넓거나 큰 여울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각진 荊角津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옥천)에는 “문의현에서 형각진이 된다”고 하였고, 『대동여지도』에는 그 부근에 형강(荊江)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같은 이름의 다른 표기로 볼 수 있다. ‘형(荊)’은 곧 ‘가시’로서 거칠거나 크다는 옛말과 관계되므로 큰 강을 뜻하는 이름으로 보이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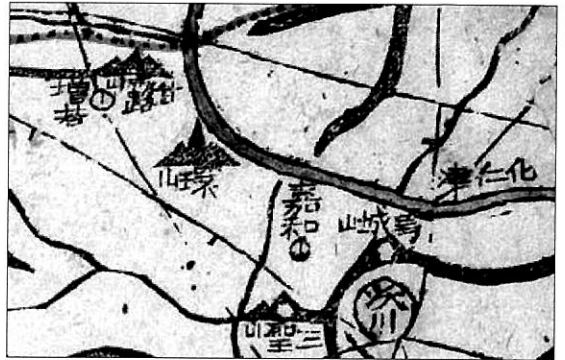


『팔도군현지도』(문의 형각진 일대)

▶화인진 化仁津

충청도 지방에서 불렀던 문헌상 이름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옥천)에는 금강을 설명하면서 “고을 동북쪽

으로 화인진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명칭의 내력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대동여지도』(16첩 4면) 화인진 일대

▶호강 湖江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부터 부르던 문헌상 이름 중 하나이다. 고전(古典)상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국사대사전』, 『한국지명유래집』 등 여러 문헌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정약용(丁若鏞)은 『아언각비』에서 의림지·벽골제 등은 ‘호(湖)’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강의 서강을 서호(西湖), 마포를 마호(麻湖)로 하는 등 강 이름에 ‘호’를 쓰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 호강으로 인하여 전라도 지방을 호남(湖南), 충청도 지방을 호서(湖西)로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